

오픈소스를 이용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구축 방안*

Digital Image Archiving Methodology on the Port of Busan: A Case Study Using an Open-Source Archiving Software

송 정 숙 (Jung-Sook Song)**

허 정 숙 (JeongSook Heo)***

이 예 린 (YeaLin Lee)****

목 차

- | | |
|-----------------------------------|-----------------------------|
| 1. 머리말 | 3.1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
| 1.1 연구 목적 | 3.2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
| 1.2 연구범위와 방법 | 4.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 |
| 2. 부산항과 사진기록의 특성 | 4.1 아카이브 구축 전략 |
| 2.1 부산항과 부산의 로컬리티 | 4.2 수집대상 기록 조사 및 선정 |
| 2.2 사진 기록의 특성 | 4.3 컬렉션 구성 |
| 3. 오픈소스(Omeka)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 4.4 전시 콘텐츠 구성 |
| | 5.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부산항은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리티 공간이므로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중심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의 재현방법론을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한다.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 즉 사진기록의 특성을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가운데 사진의 전시에 적합한 오픈소스(Omeka)를 이용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실험적으로 구축해 보았다. 그 과정과 방법을 보면, 먼저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항 관련 기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 등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원본 또는 파일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기록은 더블링크어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시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였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교통공간, 역사공간, 산업공간, 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11개 전시주제를 구성하였다. 전시의 보기로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 로컬리티 아카이브, 아카이브 구축 방안,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are a methodology for locality reproduction by concretely explaining the theoretical model, procedure, and practice of constructing the Port of Busan Image Digital Archive, based on the photographic and postcard images of the Port of Busan, the representative place of Busan. Among the open-source record management programs, Omeka was chosen in implementing the digital archive because of its suitability for image exhibition. After establishing the principles for archive implemen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archive, a basic investigation was conducted for the record collection. With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that possess the related records on the Port of Busan,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Busan Museum, and the City of Busan, original image artifacts were thus collected. The collected artifacts were then described using the Dublin Core metadata and categorized by time period. The Port of Busan was classified through four distinctive spatial characteristics (transportation, historic, industrial, and living spaces). A total of 11 themes for the exhibition was then suggested. The Busan-Shimonoseki Ferry Boat was chosen as an example exhibition of transportation space.

Keywords: Port of Busan, image digital archive, locality archive, archiving methodology, open source archiving software, Omeka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제1저자)

***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과정(hjs81166@naver.com) (공동저자)

**** 부산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협동과정 석사과정(yelinmail@naver.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14년 7월 19일 ■ 최종심사일: 2014년 7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4년 8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3), 127-151, 201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4.14.3.127)

1. 머리말

1.1 연구 목적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로 인해 경상도 동래부 동평현 용미산 아래의 작은 포구였던 부산포가 조선 최초의 개항장으로 개방되고 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과 일본자본이 지속적으로 부산으로 유입되어 부산항의 모습은 빠르게 변모되어 갔다. 조선후기 이래 동래를 중심으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해 오던 구조는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따라 부산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부산항은 개항 후 현재까지 수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의 공간으로서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므로 부산항은 부산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공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항을 대상으로 장소 기억을 탐구하고, 확산 모델을 세우기 위해 실험적으로 로컬리티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민간 분야의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서도 2000년대 말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권순명·이승휘(2009)는 지역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절차와 아카이브의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김화경(2012)은 부산시에 소재한 산복도로를 대상으로 마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기록 수집전략과 수집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현문수·김동철(2013)은 지역의 특정 인물과 관련한 기록을 수집하여 로컬리티 기록화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 방법을 제

시하고 있고, 이보람 등(2014)은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뿐 아니라 민간에서 용이하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 소프트웨어인 에이투엠(Atom)의 기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이제까지 수행된 로컬리티 아카이브 관련 연구는 로컬리티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수집 방안, 설계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아카이브 구축과정과 절차를 제시한 연구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설계나 기록 수집방법 위주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록을 직접 수집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 보고, 구축하는 과정과 절차 등의 방법론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 재현 방법론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범위와 방법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록 수집 범위는 부산항과 인근 지역으로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부산항이 1876년 2월 조선 최초의 개항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2010년대인 오늘날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부산의 이동성 공간을 중심으로 로컬리티를 기록화하기 위해 부산항과 관련하여 수집한 기록은 조선총독부 관보와 신문기사, 각 철도역에서 생산한 일지(日誌)나 역사(驛史), 부산항과 인근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나 엽서·지도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이 아닌 사진이나 엽서, 지도 등의 이미지 위주의 기록을 이용하여 대중 친화적인 부산항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아카이브의 명칭

은 이미지 기록이 주가 되므로 '이미지 아카이브'로 명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대중에게 낯설 뿐 아니라 무슨 기록을 구축한 아카이브인지도 애매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아카이브를 구축할 대표 기록이 사진이므로 '사진 아카이브'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영문 명칭은 '이미지 아카이브'나 '사진 아카이브' 모두 'image archive'라고 해도 무방할 듯하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록관리뿐만 아니라 민간기록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아카이브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규모 주체로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규모의 예산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기록관리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인 에이투엠(AtoM), 오메카(Omeka), 아카이브매티카(Archivematica)의 세 종류 가운데 오메카는 기록의 전시와 온라인 출판 등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다.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카이브 구

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부산항 관련 기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사진이나 엽서 등의 원본 또는 파일을 수집한다. 이후 수집한 기록은 더블린코어(Dublin Core Metadata Element Set)에 따라 기술하고, 컬렉션 구성 원칙을 정한 후 기록을 정리한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장소기억에 따라 구분하고, 그 아래에 전시주제를 구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연구는 부산의 대표적인 로컬리티 공간인 부산항을 대상으로 로컬리티 기억을 탐구하고 기록화의 확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의 특성을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과 비교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실험적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이다. 그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하여 기억과 기록이 역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축이 활성화 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부산항과 사진기록의 특성

2.1 부산항과 부산의 로컬리티¹⁾

부산항은 개항 이후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기억

1) 이 절에서는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맥락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송정숙(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의 일부를 인용하고 보완하였다.

을 간직하고 있다. 변방의 작은 포구였던 부산은 1876년 개항으로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된 이후, 교통의 중심지로서 국외의 새로운 자본과 문물이 들어오는, 경제적 이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였다.

부산항은 1876년 2월 2일에 근대 국제항으로 개항한 이후, 그해 11월 1일에 일본 우편선인 나와마루(浪花丸)가 취항하여 처음에는 월 1회 운행하였다. 1876년 12월 17일에 체결한 부산구조계조약(釜山口租界條約)으로 초량왜관이 일본인의 전관거류지가 됨에 따라(송정숙, 2011, p. 283)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인에 의해 근대적인 도시가 형성되었다.

1883년 한일 간의 해저전선이 일본인의 전관거류지까지 닿도록 한 이후 1885년에 한일 여객항로가 개통되었다(송정숙, 2011, p. 294). 부관연락선은 1905년 9월 11일 일본 시모노세키(下關)항을 출발하여 11시간 30분 만에 부산항에 도착한 1,600톤급 이키마루(壹岐丸)가 시작이다.

이후 한일 간에 왕래하는 사람과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규모가 커지고 고속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1912년 도쿄 신바시[新橋]와 시모노세키 사이에 1·2등 특별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부산과 만주의 장춘(長春) 사이에 보통 급행열차가 운항되기 시작함에 따라 목·금·토요일에는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9시간 30분 만에 연결하는 급행선박을 운행하였다. 1913년 3월 29일 제1잔교[국제여객부두]가 개통되었다. 이는 압록강 가교, 만주 안봉선(안동-봉천) 등 대륙연결시설이 완성되는 것과 연계해 진행됐다(송정숙, 2011, p. 295).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대륙으로

의 수송물동량이 증가하여 1922년 5월 고속선 게이후쿠마루(景福丸), 11월에는 도쿠주마루(德壽丸), 1923년 5월에는 소케이마루(昌慶丸)가 취항하였다(홍연진, 2007). 일본은 1932년 만주국을 건립하여 중국침략을 가속화함에 따라 일본인의 만주 이주도 급증하였다. 한반도는 대륙침략의 병참기지화, 군수물자의 생산 강화, 조선인 강제징용, 물자 강제징발 등으로 인해 부관연락선을 통한 인적, 물적 수송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였다(송정숙, 2011, p. 295).

이처럼 부산항은 일차적으로 일본의 대륙침략과 조선 식민통치, 도항 일본인의 정착과 번영을 목적으로 일본에 의해 근대 항구로 개발되었고(배석만, 2014, p. 2), 부관연락선 역시 같은 목적에서 운행되었다. 식민지 모국인 일본과 연결되는 가장 큰 통로였던 부산항은 근대성과 수탈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이다(김동철, 2011, p. 269).

부산항은 해방 후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남북 분단과 중국 공산화, 한국전쟁으로 인한 서해안 교역권의 중심지인 인천항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태평양 넘어 미국 경제와 연결되면서 부산항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배석만, 2014, p. 1).

이러한 연유로 부산항의 경관 변모와 개발과정이 부산의 발전, 나아가 전근대 농업사회였던 한국 사회가 근대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부산항은 부산의 로컬리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공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2 사진 기록의 특성

“공간은 사회의 반영이 아니라 사회의 표현이다. 공간의 형태와 그 과정은 총체적인 사회 구조의 역동성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사회가 변하면 공간도 변화하고 더불어 인간관계도 변화한다”(정윤희, 2013, p. 247). ‘부산항’이라는 공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줄 수 있는 사진과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구축할 아카이브의 주된 기록인 사진 기록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진은 과거의 기록이다.

“현실은 늘 이미지에 기록된 대로 해석되어 왔다”(손택, 2005, p. 219). “사진은 포착된 경험이며, 카메라는 이처럼 경험을 포착해두려는 심리를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주는 의식의 도구이다”(손택, 2005, p. 18)라는 사진에 관한 손택(Susan Sontag)의 말은 그 자체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이다. 과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사진과 역사책은 동일하다. 사진이 이미지로 기록한다면 역사책은 문자로 기록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사진 책은 인용구들로 이루어진 책과 같다(권용선, 2009, p. 34).

2) 사진 기록이 문자 기록보다 대중적이다.

수전 손택이 “대상의 가시적 재현을 피하는 시각적 이미지는 무엇보다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한 매개이다.”(조민지, 2014, p. 75)고

지적했듯이, 문자에 비해 이미지는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하고 정보 전달 속도도 빠르다.

문자는 사회가 합의한 기호이므로 문자와 사물은 일치하지 않는다. 만약 문자와 사물이 일치한다면, 세계 각국의 언어가 모두 같아야 한다.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자가 다르다는 사실은 바로 언어와 사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문자는 상징화된 기호이다.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를 접하면 머리 속에서 그 기호가 나타내는 사물이나 의미를 유추하여야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의미의 추상화 과정이라고 한다. 의미의 추상화 과정은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적 활동이므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쉽지는 않은 면이 있다. 국내에서 천만 명의 관객을 돌파했다는 영화는 있지만 천만 명이 읽었다는 소설이 없는 이유이다.

반면에 이미지는 바로 지시하는 사물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호를 해독하여 그 의미나 사물을 유추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고, 오해의 소지도 없다.

3) 움직이는 이미지보다 사진이 기억하기 훨씬 쉽다.

텔레비전이 보내는 이미지는 신중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뒤의 이미지가 앞의 이미지를 곧장 지워버리곤 한다. 반면에 사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어느 한 순간을 깔끔하게 포착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어떤 순간을 특권화해 놓은 사진이 움직이는 이미지보다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으므로 기억하기 쉽다.

4) 이미지가 문자보다 뇌에 더 오래 저장된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란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며, 인간의 감각 중 무엇보다 시각적 감각이 가진 훌륭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수사이다. 이미지가 문자보다 뇌에 더 오래 저장된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적인 감각에 호소하는 전시는 다른 지각보다도 인지적 침투효과가 높으며 어떤 자극보다 지속적이다(조민지, 2014, p. 83).

5) 사진은 보다 객관적이다.

“사진의 기계적인 기록방법은 사실적 이미지의 보존이라는 면에 있어 무엇보다 객관적이라 믿게 하였고, 사진만이 인간의 시각을 그대로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이인미, 2008, pp. 3-4).” 따라서 사진은 이미 발생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통용된다.

6) 사진은 기록화가 용이하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사진을 찍는 것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간편하다. 즉 값싸게 기록화 할 수 있다. 사진은 누구나 생산할 수 있고, 또 소장하고 있으므로 사진아카이브 구축 후 이용자 참여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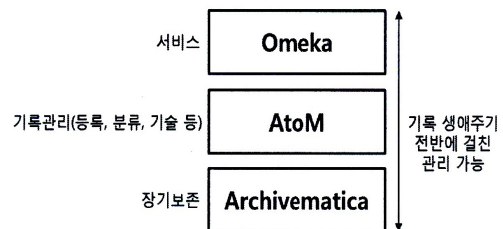
게다가 가볍고 싸게 만들 수 있으며, 쉽게 휴대·적재·보관할 수도 있다(손택, 2005, p. 18).

이로 볼 때 과거의 기록이라는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미지 위주의 사진 기록이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보다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하고, 오래 기억 될 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기록화가 용이하므로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오메카(Omeka)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3.1 오픈소스(open source)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오메카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에이투엠(AtoM), 오메카(Omeka), 아카이브매티카(Archivematica)의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면, 에이투엠은 등록·분류·기술 등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메카는 기록의 전시와 온라인 출판 등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고, 아카이브매티카는 장기보존에 유용하다.



〈그림 1〉 기록관리 관련 공개 소프트웨어 (이보람 외, 2014, p. 203)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세 가지 기록관리 분야의 공개 소프트웨어 가운데 주로 수집된 기록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전시 위주의 사진 아카이브 구축에는 오메카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에이투엠은 전반적인 기록관리 기능을 구비하고 있고, 기록을 계층화하여 조직하는 데 특히 유용하므로 전문적인 기록관리요원이 배

치되지 않은 민간 아카이브에서는 구축하기 어렵고, 기록의 장기보존을 위한 아카이브메타카도 민간 아카이브가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오메카는 로이 로젠웨이그 센터(Roy Rosenzweig Center)에서 개발하여 2008년 2월 21일 출시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을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다. 웹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역사 문화 컬렉션 출간 및 전시를 기본 목적으로 하며, 이용자가 기능성을 확장할 수도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디스페이스(Dspace)와 페도라(Fedora)는 학위논문이나 출판 전 논문, 회색문헌 등 도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기록에 대해 충분히 기술할 수 없다.²⁾ 이에 비해 오메카는 전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더블린코어를 이용하여(이보람 등, 2014, pp. 202-203) 기록에 대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오메카를 활용하여 로컬리티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오메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이를 이용하여 아카이브를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 단위의 아카이브에 적합하다. 또한 전시가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오메카를 활용한 사진 아카이브 사례 분석

오메카를 이용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한 국내외 사례를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구조, 사용한 기록의 종류와 전시 콘텐츠의 구조, 사용한 플러그인(plug-in)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참조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외는 오메카로 구축된 다양한 아카이브 가운데 사진기록이 주가 되어 구축된 도시아카이브를 사례로 살펴보고, 국내에서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가 유일하므로 이를 살펴볼 것이다.

2) 오메카와 비슷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디스페이스와 페도라가 있다. 디스페이스는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이미 대중성이 높고 미국 내 기관 레포지토리를 운영하는 대학들 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이다(Markey et al., 2007; 김지현, 2010에서 재인용). 디지털 형태로 작성된 저널 논문, 학회 논문, 책, 기술 보고서 등을 등록할 수 있다. 디스페이스는 3단계의 수직적인 계층구조를 제공한다. 접근에 대한 제어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을 특정 그룹에 소속시키고, 컬렉션과 아이템에 대해 그룹의 접근제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페도라는 1997년에 코넬 대학교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비영리 목적의 듀라스페이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다. 디지털 객체 리포지터리로 설계되었으며, 디지털 텍스트, 출판, 사진, 비디오 등을 등록할 수 있다. 확장성이 강하고 유연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불편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계층구조에 있어서 수직적인 계층구조가 아니라 개체 간 관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높은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이 요구되어, 관리자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오메카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게시된 디지털 객체는 접근 제어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하며 해당 페이지에서 아이템, 컬렉션, 사용자 그룹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이종덕 외, 2013). 즉, 오메카는 디스페이스나 페도라에 비해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관리가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도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3.2.1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
(<http://gvh.aphdigital.org/>)

그리니치 마을(Greenwich Village)은 미국 뉴욕주(州) 뉴욕 맨해튼섬 남부에 있는 예술가 거주 지역이다. 브로드웨이 근처 그리니치 거리를 중심으로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나 클럽이 모여 있는 지역을 '그리니치 마을(Greenwich Village)'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은 영국인 이주자들이 런던 근교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뉴욕에

서 가장 인기 있는 이곳은 자유롭고 예술적 기질이 다분한 보헤미안적 분위기를 품고 있다. 20세기 들어 포(Edgar Allan Poe), 휘트먼(Walt Whitman) 등 여러 작가와 예술가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갖게 됐다.

1940년대에는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그 후 1955년, 뉴욕의 대표 정보지 'The Village Voice'가 이곳에서 발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예술가들은 그리니치 마을을 떠나게 되었지만 예술적인 분위기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림 2>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의 전시

〈표 1〉 그리니치 마을사 아카이브 전시 예

구분	전시 주제	전시 내용
장소	평화의 펜타곤: 라파예트 339 번가, 평화운동의 역사	동쪽 339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이 건물에 입주하였던 평화운동을 지지하는 다양한 단체와 관련한 내용
사건	베트남 전쟁 시대에 그리니치 마을에서 일어난 반전, 반정부 운동	1960년대와 70년대에 그리니치 마을에서 결성된 반전, 반정부 운동 집단
인물	에디 크레이머: 이민자, 예술가 및 미술치료의 개척자	이민자로서, 미술치료의 개척자로서, 예술가로서 에디 크레이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

‘그리니치 마을사’ 아카이브는 뉴욕시 기록관에서 두드러지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뉴욕대학교의 ‘디지털로 역사 만들기(the Creating Digital History)’ 수업의 일환으로 그리니치 마을의 역사를 디지털 상에서 구현하고자 기획되었다.

아카이브 구축에는 뉴욕시에 소재하는 여러 기억 기관인 뉴욕시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뉴욕대학교 기록관(NYU University Archives), 뉴욕시 역사협회(New York Historical Society)의 디지털 기록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델라웨어 미술관(Delaware Art Museum),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 스미스소니언 국립박물관(Smithsonian National Museum) 등이 소장한 1차 정보원들을 이용하였다.

컬렉션은 기록의 소장처, 주제, 혹은 형태에 따라 총 87개로 이루어져 있다. Collection Tree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계층성이 부족한 오메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컬렉션과 아이템 사이에 하나의 계층을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Exhibit Builder, Simple Pages, Simple Vocab, Geolocation, Site Notes, TimeLine,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등의 플러그인을 사용하였다.

그리니치 마을의 과거에서 큰 역사를 지닌 작은 극장: ‘그리니치 마을 극장(A Little Theater with a Big History: The Greenwich Village Theatre)’, ‘미국의 보헤미아: 1910년대의 그리니치 마을(America’s Bohemia: Greenwich Village in the 1910s)’ 등과 같이 그리니치 마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장소, 건물, 사건, 인물 등 총 69개의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 주제 중 장소, 사건, 인물에서 각각 1개씩의 예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3.2.2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

(<http://bridgesnyc.com/postcards/>)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는 뉴욕의 퀸즈대학(Queens College) 대학원의 샤냐 마체스(Shayna Marchese)에 의해 구축되었다. 뉴욕시와 그 주변 대도시 지역의 교량 엽서를 활용하여 만들었다. 덜 알려지거나, 교체 혹은 철거된 교량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고 있다.

뉴욕시(New York City)를 중심으로 뉴욕주(New York State), 뉴저지주(New Jersey), 코네티컷주(Connecticut), 펜실바니아주(Pennsylvania), 그 외 주변지역(Farther Afield) 등

6개 지역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으며, 오직 엽서만 이용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뉴욕시 교량 엽서’ 아카이브는 다음 <그림 3>에서 보듯이 ‘과거+현재(Then + Now)’라는 전시도 제공하고 있는데, 엽서를 통해 교량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고, 그곳의 현재 사진을 함께 전시하여 교량과 주변 경관의 변천을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아카이브 구축에 Simple Pages, Exhibit Builder, Geolocation 등의 플러그인(plug-in)을 이용하였다.

3.2.3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
(<http://projects.umwhistory.org/images/>)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어머니 메리 워싱턴(Mary Washington)의 이름을 딴 메리워싱턴대학(University of Mary Washington)은 1970년 남녀공학이 되기 전까지 버지니아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의 여자대학이었다.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그림 3>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의 전시 <Then + Now>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는 메리워싱턴대학의 맥클러켄(McClurken) 박사의 디지털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들은 ‘메리 워싱턴 이미지 그룹(Mary Washington Image Group)’을 결성하여, 메리 워싱턴대학의 사진 기록 수집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까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컬렉션은 시기에 따라 구성하였으니, 최초의 1910년대-1920년대까지는 20년을 단위로, 이후는 10년씩을 단위로 2000년대까지 모두 9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된다.

전시에 있어서는 학교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4개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위수여식, 전통행사, 클럽활동, 공식 행사 등 4개의 전시를 구성하여 기술하고 관련 사진을 제시하고 있

다. 전시 주제는 다음 <그림 4>의 ‘학위수여식(Commencement)’처럼 공식적인 학교 행사 사진부터 동아리 활동사진, 친구들과 찍은 비공식적인 사진 등 당시 학교 내·외부에서 생산된 메리워싱턴 대학의 구성원들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Simple Pages, Exhibit Builder, Contribution 등의 비교적 기본적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특히 이 아카이브에서 특징적인 것은 동문들로부터 개인 소장 사진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기증(Contribution)’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페이지에서 동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이 이 아카이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4>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의 전시 ‘학위수여식’

3.2.4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

(<http://omeka.hmarchives.com/>)

'인간과 기억아카이브'는 1998년에 설립된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공공 영역에 치우친 국내의 기록관리가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3년 7월에 설립하였다. 편지·일기 등 개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다양한 일상 기록들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주로 에이투엠을 기반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http://hmarchives.com/?page_id=8).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는 '인간과 기억아카이브'의 소장물 중 2013년 5월 12일 일기 수집 이벤트를 통해 유치원생·학생·직장인·주부 등 581명의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일기로 구성된 일기 컬렉션을 에이투엠이 아닌 오메카를 이용해 일기를 전시하기 위해 구축한 아카이브이다.

일기 컬렉션은 기증받은 학교, 기관을 기준으로 서울 자운고등학교 학생들 일기 컬렉션, 시민 생활아카이브-2013년 5월 12일 일기 컬렉션, 서울 누원고등학교 학생들 일기 컬렉션, 셋별유치원 원생들 그림일기 컬렉션의 넷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의 구성은 다음 <그림 5>의 '성장일기'와 '특별한일요일', '부모님사랑', '친구와 함께', '따분한 하루', '생일 그리고 이벤트'로 주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각 전시에서는 기록 아이템과 제목이 표시되며, 선택하면 기록 아이템에 대한 상세 기술이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기록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각 아이템을 더블클릭으로 기술할 뿐 아니라, 각 기록의 사진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함께 기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메카를 이용하여 구축된 아카이브이다.



<그림 5>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의 <성장일기>

이상 오메카로 구축된 아카이브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그리니치 마을사(Greenwich Village History)’ 아카이브는 그리니치 마을이라는 뉴욕시의 특정한 지역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뉴욕시의 역사와 기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도시의 로컬리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부산항 전시를 구성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뉴욕시 교량 엽서(Bridges Nyc Postcards)’ 아카이브는 컬렉션의 구성이 교량에 대한 엽서로 이루어져 있어 도시 경관의 변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량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전시를 구성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비한 전시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참고하여 부산항 경관의 변모를 과거와 현재를 대비한 전시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사진을 통해 본 메리워싱턴대학의 역사(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아카이브는 외부의 동문들로부터 기록 수집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기증(Contribution)’ 기능을 추가하여 아카이브를 구성함으로써 동문이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아카이브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에도 시민들이 부산항 관련 사진이나 엽서를 기증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기증(Contribution)’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

4.1 아카이브 구축 전략

망라적인 기록화 방법을 지양하고 주제에 충실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의 구축 목적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개발 원칙과 수집 전략, 아카이브 구조를 정해야 한다. 이 아카이브는 부산항이라는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을 포착하고, 그 이미지의 변천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부산의 로컬리티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맥락조사와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 1원칙: 부산의 로컬리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부산항’을 선정한 만큼 부산항과 그 일대를 담은 이미지 기록으로 한정하여 수집한다.
- 2원칙: 기록의 수집에 있어 관련 기관의 기록은 물론 개인기록까지 적극 수집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직접 아카이브에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 3원칙: 컬렉션은 시기별로 나누어 장소의 변화를 보여주도록 하되, 그 시기 구분은 기타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4원칙: 부산항과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전시 콘텐츠를 설계하고, 이들 콘텐츠가 부산항이라는 주제를 기준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도록 한다.

기록 유형 중에서 사진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보다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록의 생산과 기록의 내용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는 아카이브가 기록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에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픈카의 플러그인 중 하나인 기증(Contribution)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엽서 등 이미지 기록을 자유롭게 아카이브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대상 기록을 조사하였고, 수집한 기록은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게 구성된 컬렉션과 전시를 통해 부산항에 대한 기억을 재현할 것이다.

4.2 수집대상 기록 조사 및 선정

수집대상 기록을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우선 부산항에 관한 이미지 기록의 소장처를 파악하고, 소장 기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부산항 관련 이미지 기록의 소장처는 크게 기관, 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소장 기관으로는 국가기록원, 부산박물관, 부산시청, 부산항만공사가 조사되었으며, 개인소장자는 부산 지역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조사되었다. 부산항 관련 사진집인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부산광역시, 2013)과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김재승, 2005)에서

도 부산항 관련 사진을 조사하였다. 조사 후 소장 기관과 개인, 사진집의 발행기관과 저자 등과 접촉하여 저작권 허락을 받았으며, 다양한 전시를 위해 부산항과 그 인근에 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였다.

아카이브 구축 대상 기록을 선정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복되는 사진,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식별하기 힘든 사진, 행정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공사 사진은 제외하였다. 대신 부산항의 전경이 잘 보이는 사진, 장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진을 위주로 대상기록을 선정하였다. 중복 사진의 경우, 흑백보다는 컬러사진 위주로 선정하였다.

기관에 따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특성이 달리 나타났는데,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 관련 사진은 해방 후 본격적으로 부산항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 이후의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당시 ‘공보처 홍보국 사진담당관’이 찍은 사진으로 부산항 확장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을 찍은 사진이나 이와 관련된 행사를 찍은 사진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는 부산항과 그 주변 지역의 전경을 담은 사진이다.

부산박물관에서 소장한 부산항 관련 이미지 기록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진엽서가 주를 이루었는데, 부산항 전경은 물론 부산항 주변의 근대 시설을 담은 사진엽서까지 소장하고 있었다.

부산시청과 부산항만공사가 소장하고 있는 부산항 관련 사진은 수가 많지 않았으며, 시기도 편중되어 있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 소장 사진은 국가기록원과 유사하게 주로 부산항의 발전과정과 관련한 과거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

〈표 2〉 부산항 관련 기록의 주요 소장처와 특징

소장처	년도	특징
국가기록원	1957 ~ 1991	국가 행사 및 부산항 공사 사진이 다수. 당시의 부산항 전경사진 포함
부산박물관	1938 ~ 1939	일제 강점기에 발행된 엽서가 주를 이룸
부산항만공사	1900 ~ 2013	부산항 개항 후 현대까지의 사진
개인 소장자 A	1900년대 초중반	부산항과 관련한 엽서 소장
개인 소장자 B	1885 ~ 1954	개항 이후 부산과 부산항 사진과 부산포 거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구성. 부산시 중구청과 함께 펴낸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 발간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1945 ~ 1964	미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부산 관련 사진.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발간
부산시청	1876 ~ 2013	부산항 개항 후부터 현대까지의 사진

으며, 그 외는 현재의 부산항 모습을 담은 사진이었다.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은 미국과 일본에 남아있는 해방 직후부터 6.25 전쟁 기간 그리고 그 이후 약 10년간의 부산 사진을 담고 있다. 사진을 찍은 주체는 당시 한국에 주둔 하던 미군과 미국 국적의 민간인으로 국내 다른 소장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진이 많았다.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은 개인이 엮은 사진집으로, 해설을 곁들이고 있어 사진을 찍은 년대와 시대적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40년간 운항하였던 부관 연락선의 사진을 소개하는 장이 따로 되어, 이를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였다.

4.3 컬렉션 구성

사진 기록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즉, 사진 기록에 담겨있는 시대적·공간적 의미를 찾아내어 기술함으로써 장

소성을 표현해야 한다. 이에 ‘부산항’이라는 장소에 대한 연혁 조사, 수집한 사진 기록에 대한 맥락 조사를 거쳐 컬렉션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집을 통해 획득한 기록은 국가기록원, 부산항만공사, 부산박물관 및 기타 개인 소장 기록 등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리를 위한 특정 질서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사진 기록의 생산 시기 혹은 사진이 담고 있는 시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고, 출처가 다양한 만큼 출처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으며, 장소 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진에 따라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다.

해당 아카이브는 장소의 변화, 장소 기억의 변화라는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진기록의 생산 시기 혹은 사진이 담고 있는 시기에 따라 정리하였으며, 부산항 및 한국사 전반에 큰 변화를 끼친 역사적 사건을 컬렉션의 시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개항 초기 부산항 시설은 과거 부산시청(남포동) 부지 일원에 소규모 방파제로 둘러싸인 약

〈표 3〉 컬렉션 구성 시기와 특징

컬렉션명	시 기	특 징
개항기	1876 ~ 1907	최초의 개항장으로 일본인의 이주 통로
일제강점기	1907 ~ 1945. 8. 15	1907년 북반매축공사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항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탈의 장소가 됨
8.15광복과 한국전쟁	1945 ~ 1962	해외동포들의 귀환, 미군 입성, 포로 생환 등 사람들에게 이별과 만남의 장소로 각인되는 시기
산업발전기	1962 ~ 1997	제1차 경제개발5개년으로 항만 정비와 확장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부산항 개발사업을 통해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신항만 시대와 오늘날	1997 ~	

23,000㎡의 선유장이 근대 부산항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74, p. 941). 이후 약 30여 년간 거의 천연항으로 시설 정비가 없었으나 1902년 현재 대청동 일대에 13만㎡ 규모의 야적장과 안벽을 축조하여 주차장, 세관, 우편국 등을 설치하면서 근대적인 항만 개발이 시작되었다(김춘선 등, 2013, p. 82). 또한 대청동 개발을 시작으로 부산항 제1부두에서 제8부두까지 개발되면서 일부 지역은 매립을 통해 용지를 확보하여 현재 동쪽으로는 용호동 신선대 부두에서 서쪽으로는 중앙동, 남포동, 광복동까지 항만과 연계되어 배후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김춘선 등, 2013, p. 88).

해방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부산항은 일제의 강점 하에서 외적 수요에 의해 항만 매립 및 축조공사가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산은 일본이 식민지 수탈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도시였고, 그 출발이 부산항 개발이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부산항은 근대화 상징이자 수탈의 공간이라는 양면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후 광복과 한국전쟁을 겪게 되면서 부산항은 해외 동포들의 귀환·UN군 상륙·피난민

들의 정착 등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적인 시대적 아픔을 간직한 공간이었다. 이후 1960년대부터 부산항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부산항 1,2,3 단계의 본격적인 항만 개발을 통해 현재의 국제무역항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온 부산항은 수탈과 침략→외적 개발수요→피난과 귀환→경제개발→국제무역항으로서의 변천특성을 가지고 있다(조성태, 강동진, 2009, p. 253). 그래서 시기에 따른 장소성의 변화를 각 컬렉션으로 구성하고, 부산항 연혁을 컬렉션 시기를 나누는 기준으로 정하였다.

4.4 전시 콘텐츠 구성

전시 콘텐츠는 컬렉션과 달리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다. 특히 오메카는 기록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서비스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부산항과 관련한 다양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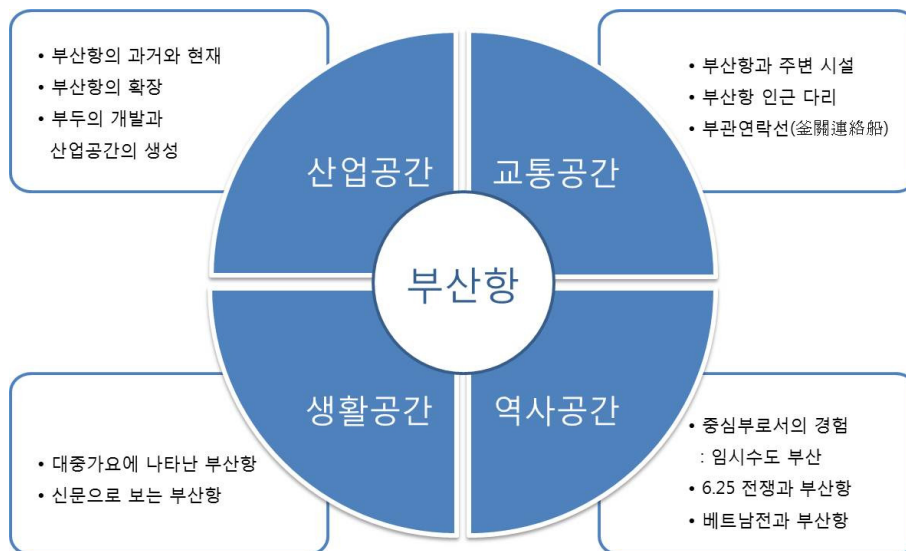
전시 주제를 정하는 시기는 ① 아카이브 구축 목표와 원칙 수립 단계, ② 맥락조사 단계, ③ 수집과 컬렉션 구성 단계 등 다양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아카이브 구축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부산항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최초의 개항장이었던 부산항은 항구이므로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로서 사람과 물자가 드나드는 교통공간이다. 둘째, 제2차 대전의 종전이나 6.25 전쟁 등으로 귀환동포, 피난민, 유엔군이 드나들던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역사공간이다. 셋째, 부산항은 원자재와 생산품의 하역과 선적이 편리한 항구이므로 항구 인근의 지역을 매축하여 영도조선소처럼 공장이 많이 건설되었던 산업공간이다. 넷째, 부산항은 또한 단순히 물자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지역 주민의 일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부산항을 공간적 성격에 따라 교통공간, 역사공간, 산업공간, 생활공간으로 4분하고, 그 아래에 11개의 세부 전시 주제를 도출하였다.

오메카를 이용한 11개의 전시 콘텐츠 가운데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을 보기로 제시하

였다. 부관연락선(釜關連絡船)은 일제 패망 때까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 사이를 운항 하던 연락선으로 관부연락선(關釜連絡船)이라고 부른다. 1905년 9월 산요기선주식회사(山陽汽船株式會社)에 의해 개설되어 조선의 경부철도(京釜鐵道)와 일본의 도카이도(東海道)·산요·규슈(九州) 철도 간에 여객·수하물·속달취급화물의 연대운수(連帶運輸)를 개시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당시 탄광노동자 등의 징용 시 쓰였으며, 일본 유학생 및 다양한 사람과 물자들이 부관연락선을 통해 조선과 일본을 오고갔다. 즉 부관연락선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수탈하고 착취한 인력과 재화의 수송수단이자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인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로서의 기억 등을 간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주제와 관련 있는 ‘일제강점기’ 컬렉션에서 부관연락선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였으며,



<그림 6> 전시 콘텐츠 구성

전시 기술은 부산박물관이 펴낸 도록인 『사진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부산박물관, 2007)와 김재승의 『기록 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김재승, 2005)을 참고하였다.

전시를 구성하는 절차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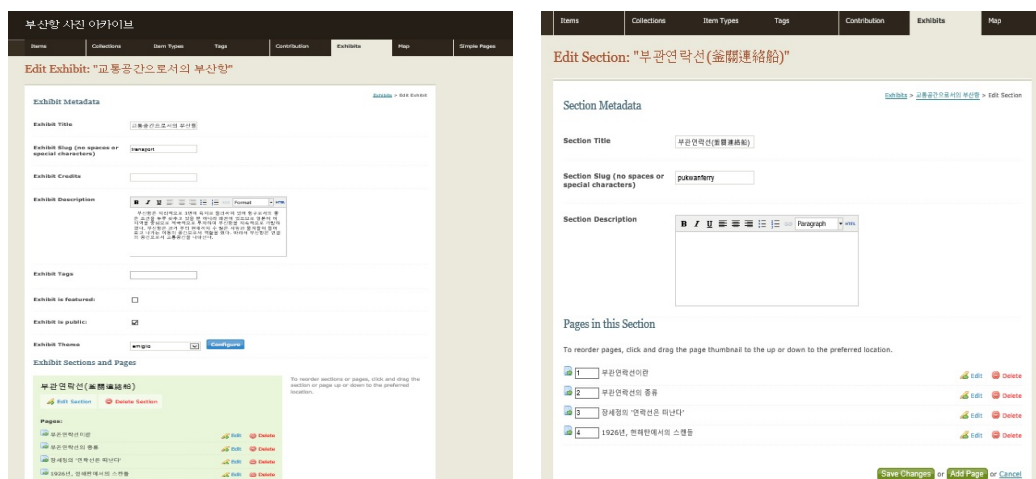
첫째, 수집된 기록의 내용을 조사한다. 부관연락선과 관련하여 수집된 사진이나 엽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부관연락선’의 배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엽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잔교(棧橋)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엽서의 순이었다. 이에 부관연락선의 배의 종류와 관련한 별도의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전시 구성 및 하위 페이지에 담은 스토리를 결정한다. 부관연락선에 대한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위주로 구성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

이 아카이브에서는 부관연락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킨 해설을 우선으로 하되, 이용 연령층이 넓은 것을 감안하여 최대한 쉽고 가독성이 높게 배열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관연락선과 관련하여 대중가요³⁾와 당시 유명했던 사진⁴⁾ 등을 한 섹션으로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7> 참조).

셋째, 각 페이지의 기록 배치를 결정한다. 페이지에 담은 스토리 및 기록 수, 레이아웃(layouts) 등을 설정한다. 오메카는 12개의 레이아웃을 지원한다. 그러므로 해당 페이지의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배치도를 선택하여 기록을 배치한다. 기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와 정보 전달이 아닌 유사한 기록을 나열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라 레이아웃을 달리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그림 8> 참조).

오메카에서는 전시 설계를 위와 같이 간단하



<그림 7> 전시 섹션 설계

- 3) 정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박영호 작사, 김해송 작곡.
- 4) 1926년, 현해탄에서의 스캔들: 윤심덕 · 김우진 동반 자살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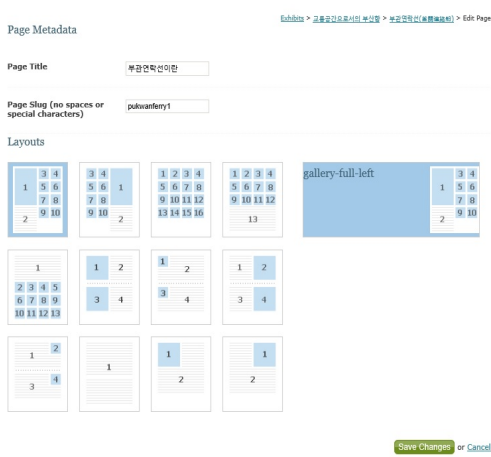
게 할 수 있다. 위의 진행 단계에 따라 완성된 전시는 오메카에서 제공하는 전시 테마에 맞춰 아카이브에 게시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단계를 거쳐 다른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그림 9〉 참조).

더불어 전시에 이용된 아이템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오메카는 기술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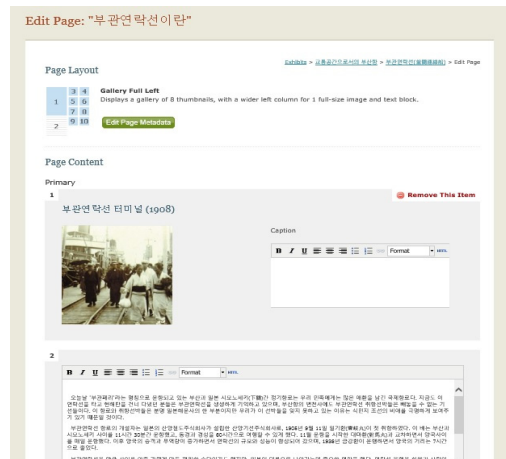
로 더블링크어를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링크어에 맞춰 컬렉션에 등록했던 세부 정보를 전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그림 10〉 참조).

오메카를 이용하여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시범 구축하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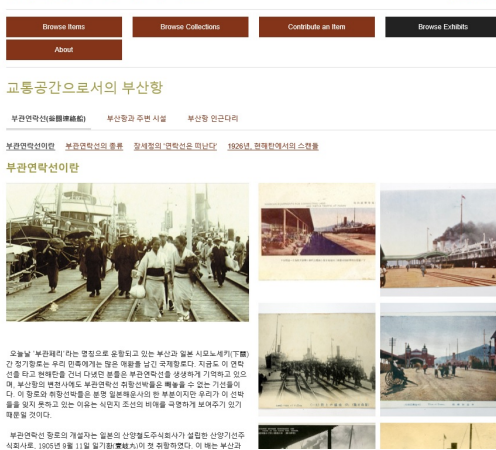
첫째,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메



〈그림 8〉 전시 페이지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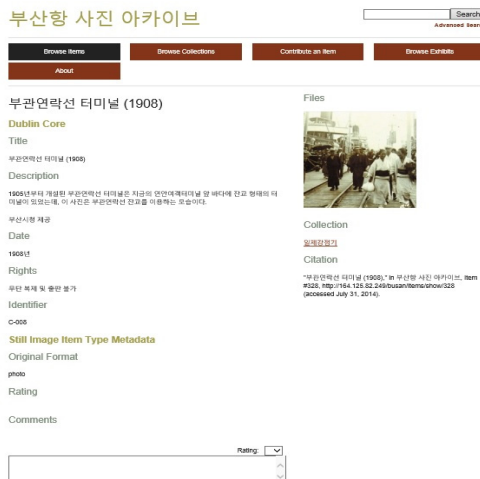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



〈그림 9〉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의 전시: 교통공간의 ‘부관연락선’

교통공간으로서의 부산항





〈그림 10〉 컬렉션 내 아이템 페이지와 전시 내 아이템 페이지

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오메카의 장점으로는 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컬렉션 구성이 ‘컬렉션(Collection)-아이템(Item)’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하다, ③ 콘텐츠를 제작할 때 내용과 기록 배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④ 오메카의 본래 기능 외에도 기증(Contribution)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메카의 단점으로는 ① 아카이브를 보다 세련화하기 위해선 별도의 비용이 든다, ② 한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둘째, 동일한 경관에 대한 복수의 사진이 전하는 경우, 소장처에 따라 기록의 생산자(Creator)와 생산시기(Date)가 달랐고, 사진에 대한 해설이 상이했으므로 기술사항(Description) 등도 달랐다. 만약 컬렉션 구성 단위를 소장처로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생산시기별로 컬렉션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생산자·생산시기·기술사항은 다르지만 경관은 동일한 사진이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기술사항에 소장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소장처별로 식별코드(Identification)를 부여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진에 대한 해설이 상이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기록을 기술할 때 문헌이나 다른 기록들과 상호대조, 혹은 검증을 거쳐 기술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로컬리티 공간인 부산항과 인근지역의 경관에 관한 사진, 엽서 등 이미지 기록으로 ‘부산항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로컬리티의 재현방법론을 확산하고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미지 위주의 사진 기록은 문자 위주의 텍스트 기록과 비교하면, 과거의 기록이라는 면

에서는 동일하지만 정보전달과 수용이 용이하고, 오래 기억 될 뿐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기록화가 용이하므로 대중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미지 기록의 대중 친화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부산항에 관한 사진, 엽서 등의 이미지 기록을 수집하여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가운데 사진의 전시에 적합한 오메카를 이용하여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실험적으로 구축해 보았다.

그 과정과 방법을 보면, 먼저 아카이브 구축 목적에 따른 개발 원칙을 세우고, 기록 수집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산항 관련 기록 소장기관과 개인소장가 등의 저작권 동의를 얻어서 원본 또는 파일을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한 기록은 더블링크어에 따라 기술하였으며, 시기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였다. 부산항의 공간적 성격을 교통공간, 역사공간, 산업공간, 생활공간으로 구분하고, 11개 전시주제를 구상하였다. 전시의 보기로 교통공간의 부관련락을 제시하였다.

오픈소스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이용하여 부산항 디지털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오메카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메카의 장점으로는 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컬렉션 구성이 '컬렉션(Collection)-아이템(Item)'의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하다. ③ 콘텐츠를 제작할 때 내용과 기록 배열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④ 오메카의 본래 기능 외에도 기증(Contribution) 등 다양한 플러그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메카의 단점으로는 ① 아카이브를 보다 세련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② 한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아울러 동일한 경관의 사진이라도 기술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기술할 때 문헌이나 다른 기록들과 상호 대조, 혹은 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좀 더 많은 사진이나 엽서 등이 확인되었으나 소장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수의 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업로드 함으로써 계속 발전될 수 있고 이용자와 소통하는 아카이브를 지향하였다.

오메카가 디지털 전시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이므로 기록관뿐 아니라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도 디지털 전시를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이 연구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순명, 이승휘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권용선 (2009). 세계와 역사의 몽타주,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그린비출판사.
 김동철 (2011). 근대 부산의 교통발달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53-271.
 김재승 편저 (2005). 기록사진으로 보는 부산·부산항 130년.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청.
 김지현 (2010). 교수들의 셀프 아카이빙 저작물의 종류와 저장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53-74.

김춘선, 김성귀, 이재완, 이성우, 박승기, 이한석, 임영태, 류재영 (2013). 향만과 도시. 서울: 블루엔노트.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미뉴엘 카스텔; 김복한, 박행웅, 오은주 옮김 (2003).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광주: 한울아카데미.
배석만 (2014). 한국전쟁 전후 부산항 연구의 성과와 과제. 港都釜山, 30, 1-35.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부산광역시 (2013). 미국립문서관리청 소장 부산 사진자료집.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시립박물관 (2007). 사진 엽서, 부산의 근대를 이야기하다. 부산: 부산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편 (1974). 釜山市誌. 부산: 부산시사편찬위원회.

송정숙 (2011). 개항장으로서의 부산항과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73-298.

송정숙 (2012). 부산의 기억과 로컬리티: <부산의 인물>과 <부산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43-364.

손택, 수전; 이재원 옮김 (2005). 사진에 관하여. 서울: 도서출판 이후.

양홍숙 (2012). 개항 후 초량 사람들과 근대 공간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4, 211-24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이보람, 황진현, 박민영, 김형희, 최동운, 최윤진, 임진희 (2014). 공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록시스템 구축가능성 연구: ICA AtoM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9, 193-228.

이인미 (2008). 사진을 통해 재현된 부산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종덕, 신규용, 유진철 (2013). 교육자료 아카이빙을 위한 리포지토리 설계 및 구축 방안.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6(6), 95-102.

일제강점기, 부산의 근대 건물과 거리 (2009. 9. 2). 부산일보. 검색일자: 2011. 4. 23.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90000&newsId=20090902000145>

정윤희 (2013). 흐름의 공간과 비장소로서의 도시 형상과 세계화: 안드레아스 구르스키의 사진 고찰. 뷔히너와 현대문학, 41, 247-270.

조민지 (2014). 이미지의 시대 기록전시와 사진기록. 기록학연구, 39, 73-100.

조성태, 강동진 (2009). 부산항 해안선의 변천과정 분석: 근대기 이후 시계열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 도시설계학회지, 10(4), 249-266.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10).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개정판. 서울: 아세아문화사.

현문수, 김동철 (2013). 지역사 인물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 박기종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6, 195-231.

홍연진 (2007). 부관연락선과 부산부 일본인. 최영호 외. 부관연락선과 부산. 서울: 논형.

[웹사이트]

- 인간과 기억아카이브 omeka. <http://omeka.hmarchives.com/>
'Bridges NYC Postcards' Archive. <http://bridgesnyc.com/postcards/>
'Greenwich Village History' Archive. <http://gvh.aphdigital.org/>
'Mary Washington Images Throughout the Years' Archive.
<http://projects.umwhistory.org/imag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Suk Man (2014).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studies on the Port of Busan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The Journal of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30, 1-35.
- Busan Metropolitan City (2013). Collection of Busan photographs housed in the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Busan Metropolitan City.
- Busan Museum (2007). Photographs and postcards tell us the Modern Times of Busan. Busan: Curating Lab of Busan Museum.
- Castells, Manuel (2003). Rise of the network society. Kim Mookhan et al. trans. Paju: Hanul.
- Cho, Sung-Tae & Kang Dong-Jin (2009). Analysis of change process for coastline of Busan Port: With focus on time-series approach after modern era.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itute of Korea, 10(4), 249-266.
- Hong, Yeon-Jin (2007). Busan-Shimonoseki cross-channel liner and the Japanese people in Busan. in Choi Yung-Ho et al. Busan-Shimonoseki Cross-channel Liner and Busan. Seoul: Non-Hyung.
- Hyun, Moonsoo & Kim, Dong-Chul (2013). A study on developing archival contents for documenting local historical charact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195-231.
- Japanese Colonial Era, Modern buildings and streets of Busan (2009. September 2). Busan-Ilbo. Retrieved April 23, 2011, from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90000&newsId=20090902000145>
- Jo, Min-ji (2014). Archival exhibitions and photographs in the age of the imag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73-100.
- Joung, Yoon Hee (2013). Zusammenfassung: Globalisierung und Urbane Phänomene als "Raum

- der Strome” und “Nicht-Orte”-In Bezug auf Andreas Gurskys Fotografien. *Buechner und Moderne Literatur*, 41, 247-270.
- Kim, Chunseon, Kim, Seonggi, Lee, Jaewan, Lee, Seongu, Park, Seunggi, Lee, Hanseok, Lim, Yeongtae, & Ryu, Jaeyeong (2013). *Port & City*. Seoul: Blue & Note.
- Kim, Dong-Chul (2011). Development in the means of transportation of Busan in the modern age and its records: Focused on trains and tra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53-271.
- Kim, Hwa-Kyo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143-161.
- Kim, Jae-seung comp (2005). *Images of Busan & Port of Busan: 130 Years*. Jung-Gu Office Busan Metropolitan City.
- Kim, Ji-Hyun (2010). A Study on types of content and venues for faculty self-archiv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1), 53-74.
-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d. (2010).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revised edition. Seoul: Asea Munhwasa.
-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 Kwon, Yongseon (2009). *The montage of the world and history: Benjamin's Arcade Project*. Seoul: Green Be.
- Lee, Bo-Ram, Hwang, Jin-Hyun, Park, Min-Yung, Kim, Hyung-Hee, Choi, Dong-Woon, Choi, Yun-Jin, & Yim, Jin-Hee (2014). A study on usability of open source software for developing records system: A case of ICA AtoM.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9, 193-228.
- Lee, Inmi (2008). *A study on Busan's images represented by photography*.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
- Lee, Jongdeog, Shin, Kyuyong, & Yoo, Jincheol (2013).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pository for archiving educational resource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16(6), 95-102.
- Song, Jung-Sook (2011). As an open port, Busan port and related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273-298.
- Song, Jung-Sook (2012). Memories and the locality of Pusan: Focusing on historical figures of Busan and cultural properties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343-364.

Sontag, Susan (2005). On photography. (Lee Jaewon trans). Seoul: Ewhoo.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ed. (1974). The geography of Busan. 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Busan.

Yang, Heung-Sook (2012). The people of Choryang after the opening of ports and the formation of a modern space. Journal of Koreanology, 44, 211-249.

